



사측, 조합 능멸! 서명 직전 백지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다. 조합이 사측과 20일 저녁부터 21일 밤까지 벌어진 밤샘협상에서 무수한 줄다리기 끝에 임금, 복지카드, 인력충원, 신입사원 임금정상화 등에 부족하지만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최종 문구조율을 마친 상태에서 사측 대표인 부사장이 갑자기 복지카드부분을 '실수다'라는 짝막한 말로 모든 협상을 무위로 만들었다. 확인해본바, 사장이 이사회에게 전화해봤더니 어렵다는 게 이유였다.

이는 노사협상 역사상 유례가 없는 해프닝이다. 수십번을 반복한 협상과정에서 김인규사장에게 보고하고 보고해서 낸 협상안의 문구조정까지를 마치고 서명을 하려는 찰나에 사측은 모든것을 무위로 돌렸다. 성실과 신의원칙 이전에 사측은 이미 협상 파트너임을 포기한 것

이다. 이제, 조합은 이사와 임금협상을 해야하는가? 도대체 전권을 갖고 왔다는 부사장은 왜 협상팀에 왔는지, 사장은 경영을 이사회에 맡기겠다는 것인지, 누구하나 책임지는 경영진이 없다. 우리가 파업에 돌입한 것은 바로 이런 무능한 경영진 때문이다. 언제까지 우리 KBS가 이렇게 무능한 사장과 경영진 아래에서 고통받고 노동자의 기본권인 임금협상조차 이렇게 치욕적으로 당해야 하는가!

조합 비대위는 이제 조합의 명운을 걸었다. 그동안 조합원들이 보여줬던 그 뜨거운 투쟁의 열기! 역대 최고의 투쟁의지를 다시한번 민주광장에 집결시키자! 조합 비대위는 끝까지 선봉투쟁에 서서 무능경영을 박살낼 것이다!

결심 투쟁

오늘 2시 민주광장 전 조합원 집결!

중앙위원회 부상!



12구역 보도영상국 김종우 중앙위원이 20일 사측 시큐리티 직원들과의 몸싸움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급하게 119차량을 통해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병원으로 후송된 김종우 중앙위원을 진료한 의료진이 입원을 강력히 권유했으나 김종우 중앙위원은 2시간여의 간단한 처치만을 받고 다시 회사로 복귀했다. 김종우 중앙위원은 '사측의 일방적 말바꿈에 분노를 느낀다. 기필코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끌겠다.'며 결의에 찬 모습을 보였다. 각오하라 김인규. 쓴맛을 보여주겠다.